

민주당, 하위 10% 의원 경선 패널티 20%→30%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헌 개정안 의결...전당대회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 3배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소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사기가 당에 많이 반영

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바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운 것과 관련, 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주류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고 차기 지도부까지 독식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 의원은 자유당론에서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을 폐지하지는 것도 국민 눈높이"라며 꼬아붙였다.

또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왜 반란을 만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느냐. 왜 그건 관철하지 않느냐"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라고 꼬집었고, 설촌 의원은 "손을 안 대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지금 당의 분열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의 인사를 중심으로 찬성 의견도 제기됐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시기 때문에 못 바꾼다면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없다"고 했고, 한영태 경북 경주 지역위원장도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의 전수를 많이 깎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장외'에서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 개정은 민주당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제도화"라고 적었고,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꼬아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

최종 감사결과 발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7일 발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시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게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육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육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육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육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육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불가

법사위, 특례법 개정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사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구충곤 전 화순군수 '나주·화순' 출마 선언

나주서 출판기념회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7일 나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 나주·화순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 전 군수는 이날 나주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2층 대강당에서 '문화에서 길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는 "우리 음식에서 맛을 내는 기본적 양념이 씨간장이다"며 "나주·화순 지역민들의 맛깔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책임지는 씨간장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책에는 '천년의 도시 목서골' 나주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 화순 등 2개의 주제가 담겼다. '나주편'은 전라도 정신문화의 산실, 구국의 현장을 거닐다, 예술의 향기 피어나는 나주, 나주 사람들



의 큰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화순편'에는 화순의 역사, 정신문화의 샘, 풍전등화 나라 병풍이 되다, 인생은 짧디 화순 예술은 길다, 아름다운 화순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구 전 군수는 "나주·화순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콘텐츠를 간추려 문화유산 보존·활용, 경제적 가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통시적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구 전 군수는 전남도의원,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화순군수 재선,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의장, 민주당 새시대정치연합청년회 전남회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 법사위 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도

재건축 초과이익의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낮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